



'비투카다 사운드 머신'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8월 26일~28일 첨단 쌍암공원 등

세상의 모든 음악 광주 여름밤 식힌다

'한여름밤의 잊지 못할 축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지난해 첫선을 보였던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은 광주 시민들에게 색다른 문화적 감성을 전해줬다.

월드 뮤직은 우리에게 친숙한 아르헨티나의 탱고, 프랑스 샹송, 브라질 보사노바처럼 지역 민속음악에 뿌리를 두고 대중음악과 접목돼 현대화된 음악을 말한다.

'월드뮤직'이라는 장르가 지역에서는 낯선 장르였지만 시민들은 아무런 편견 없이 스펙터클처럼 속속 빨아들이며 한여름밤의 아름다움을 추억을 만들었다.

3일 동안 행사가 열렸던 광주 중앙 생활체육공원 잔디밭은 친구,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열기가 높았고, 잔디에 돛자리를 깔고 앉은 관객들은 뮤지션들의 생생한 라이브 연주에 어깨를 들쭉이며 음악에 몸을 맡겼다.

빠른 연주곡들이 흐를 땀 함께 춤추며 흥을 돋우기도 했다. 광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이었다.

오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2회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이 최근 참여 뮤지션의 라인업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7월 2일에는 올해 행사의 즐거움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공연도 준비하고 있다. 8대 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90명의 자원봉사자 '광월반디' 역시 행사 준비에 한창이다.

올 페스티벌은 메인 스테이지 장소를 첨단 쌍암공원으로 확정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완공되는 2014년 전당 앞 광장을 메인 스테이지로 활용할 예정인 주최측은 지난해 서구에 이어 올해 광산구, 이어 북구와 남구를 거쳐며 봄을 조성, 2014년 동구에 위치한 전당으로 입성한다는 복안이다.

출연 뮤지션들을 섭외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진행한 예술감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재

진씨가 맡아 동분서주했다.

메인 스테이지인 쌍암공원에 서는 대표적인 뮤지션은 뉴질랜드에서 활동하는 비투카다 사운드 머신. 이들은 브라질, 쿠바,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음악을 토대로 힙합, 레게, 펑크 등을 연주하는 5인조 그룹으로 퍼커션, 기타, 베이스, 혼, 레퍼로 구성돼 있다.

또 한국의 국악 보컬 그룹으로 영화 '워낭소리' OST에 참여했던 '아나야', 알제리 뮤지션 아마지그 카렘, 몽고의 쿠티트로 수키야키 미니멀 등이 출연한다.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진행되는 '프리미엄 스테이지'는 한국의 대표 가요인 연주자 황병기와 퍼시픽 컬즈가 장식한다.

금남로 공원에서는 파티 스테이지가 펼쳐진다. 나일 프로젝트, 가리온, DJ 시코 등이 발음



<황병기>

7월 2일 금남공원에서 '프레 콘서트'로 화려한 막

뉴질랜드 '비투카다 사운드 머신' 메인 무대 장식

쿠바·몽골 등 접하기 힘든 세계음악 만나는 기회

익은 관객들과 함께 흥겨운 무대를 만들어간다. 옛 전남도청 앞의 콘서트 홀에 역시 무대로 활용된다. 이곳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터키 음악을 연주하는 미국 그룹 '문 광즈', 모로코와 한국 연주자들이 의기투합한 '수리수리마하수리' 등이 무대에 오른다.

7월 2일 오후 7시 광주 금남공원에서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프레 콘서트'를 연다. 이날 출연진은 아프리카 밴드 '에릭 알리아나 & 코롱고 잼'과 6인조 아카펠라 그룹 '선데이 크라산'.

카메론 소수 부족 출신의 에릭 알리아나가 이

끄는 코롱고 잼은 전통적인 아프리카 리듬 위에 펑키,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혼합, 세계 월드뮤직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그룹으로 이날 아프리카 댄스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아카펠라 동호회 모노 춘천 소속의 컨템포러리 남성 6인조 아카펠라 그룹 '선데이 크라산'은 가장 아름다운 악기인 목소리와 유쾌한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그룹으로 아카펠라 워크숍을 진행한다. 문의 062-350-247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 공식 출범

광주지역 여성계의 숙원이었던 광주여성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광주여성재단은 23일 광주시 동구 호남동 대원빌딩에서 이윤자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기념식과 협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MOU를 체결,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 개발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 관련 교육·연구 기능을 하는 전문 기관이 없었던 터라 여성재단 발족은 지역 여성계에 단비같은 소식이다.

지역 여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여성재단 조직은 1실3팀으로 운영된다. 재단의 중추 역할은 정책연구실이 담당하며 교류협력팀, 교육운영팀, 경영지원팀과 대표이사 직속으로 운영위원회와 센터포럼이 구성됐다. 재단은 사무실 등 사무공간 이외에도 강의실과 전시실, 북카페, 어린이방 등을 갖췄다.

재단은 73만 여명으로 추정되는 지역 여성들을 위해 산발적으로 진행됐던 정책과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특히 중앙부처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던 데서 벗어나 지역에 특화된 사업과 정책들을 통해



23일 광주 대원빌딩에서 열린 광주여성재단 출범 기념식에서 이윤자 대표이사 가 축사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역민들에게 적합한 '맞춤'을 제 공할 예정이다.

정관에 명시된 사업은 ▲여성 및 가족 정책 연구·개발 ▲여성 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여성인권 연구, 여성 리더십 향상 및 양성 평등 교육 ▲여성 건강권 지원 사업 등이다.

출범 첫해인 올해는 여성리더 육 성,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 마을 기업 육성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여성 축제 등도 기획할 계획이다.

여성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일단 예산 확보가 당면 과제다. 올해 여성재단 예산은 3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인건비, 건물 리모델링비, 사업비 등

에 쓸 수 있는 돈은 13억원 남짓이며 나머지 17억원은 기금으로 적립해야 할 몫이다. 현재 시 출연금 100억원과 민간모금 100억원 등 기금 목표액을 200억원으로 설정해 두고 있지만 발 벗고 나서지 않으면 말잔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재단의 중요 기능이 정책 개발인 점을 감안하면 고급인력 확보와 적재 적소의 인력배치도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재단은 우선 출범 초년도 인 물에 전체 정원 가운데 75%만을 선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인력을 확충키로 했다. 그밖에 지역 여성 그룹간의 네트워크 강화와 재단의 독립성을 확보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김미은기자 mekim@

문광부, 아리랑 유네스코 등재 추진

중국의 아리랑 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리랑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정병국 장관은 23

일 "올해 안에 국내 아리랑 전체를 수집해 내년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가 아리랑을 국가 무형문

화유산으로 등재한 것에 대해 "중국 연변 조선족 아리랑도 우리 아리랑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2008년 정선아리랑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문화유산에 올리려고 신청했다가 이를 아리랑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현재 각 지역의 노래를 수집 중"이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광주서 내일까지 '生生 프로젝트'

한국문화예술위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광주와 나주에서 24일부터 25일까지 '生生(생생) 동반자 프로젝트'를 연다.

ARKO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예술가, 시·도지사, 문화재단 관계자 등 200여명의 문화계 인사들로 부터 지역 예술현장의 소리를 듣고 이

를 예술지원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24일 오후 4시 전남대 박물관 4층 응봉을 시청각실에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ARKO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는 규광(문화기획자)·김원중(가수)씨 등이 발제자로 나온다. 또 오성완(푸른연극마을 대표)·최영화(호남대 교수)·박진현(광주일보 문화예술 선임기자)씨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의 02-760-4545. /김미은기자 mekim@

곽재구시인 오늘 전대병원 특강

곽재구(57·순천대 교수) 시인이 24일 오후 5시 광주시 동구 계봉로 전대병원 6동 7층 백년홀에서 'CNUH 아카데미' 연사로 초대돼 '시와 여행, 꿈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곽 시인은 198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사랑에서'로 등단해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전장포 아리랑' '서울세노야'(시집),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한 세상' 등을 펴냈다. 문의 062-220-5114. /김대성기자 bigkim@

www.geums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 계절별미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상무점

1관	킹스피치 (12세)
2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이별 (15세)
3관	세미의 어드벤처(더빙) (전제)
4관	수상한 고객들 (15세)
5관	위험한 상견례 (12세)
6관	시라노:연예조작단 (12세)
7~10관	리뉴얼 오픈 준비중

하남점

1관	정무문:100대1의전설(15세)
2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12세)
3관	씨니 (15세)
4관	씨니 (15세)
5관	모비딕 (15세)
6관	그린랜턴-반지의선택 (15세)
7관	풍산개(18세)
8관	슈퍼에이트 (12세)
9관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 (15세)
10관	쿵푸팬더2 (전제)

www.cinuso.co.kr

3,000원 저렴하게, 선택순 30분씩 이벤트 팝콘 증정

MEGABOX

M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 (12세) 최고급관
2관	풍산개 (18세)
3관	모비딕 (15세)
4관	화이트-저주의멜로디 (15세)
5관	씨니 (15세)
6관	그린랜턴-반지의선택 (15세)
7관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 (15세)
8관	정무문:100대1의전설 (15세)
9관	슈퍼에이트 (12세)

www.megabox.co.kr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 호남주치타워, 황금주치빌딩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moviehelic

무더운 여름 시원한 극장에서 즐거운 영화와 함께 하세요

구. 런던역국사거리

☎ 1544 - 0600

그분이 돌아오셨다!

쿵푸팬더 2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CINUS

1관	슈퍼에이트(12세)
2관	쿵푸팬더2 (전제)
3관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 (15세)
4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 (12세)
5관	씨니 (15세)
6관	화이트-저주의멜로디 (15세)
7관	정무문:100대1의전설 (15세)
8관	풍산개 (18세)

색깔있는 영화선택 • www.cinuso.co.kr

씨너스전대대D(4K)상영!!